

중학생의 희망과 공감 하위집단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이 희 경[†]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587명의 서울시 소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긍정심리학 변인인 희망과 공감 수준에 따라 어떤 자연발생적 하위집단이 형성되는지를 탐색하고, 각 군집별로 심리적 안녕감 점수(또래관계의 질 및 정서·행동 상의 안녕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Hair와 Black(2000)의 2단계 군집분석 결과 4개의 군집(낮은 희망-높은 공감 집단, 높은 희망-높은 공감 집단, 낮은 희망-낮은 공감집단, 높은 희망-낮은 공감 집단)이 나타났다. 다변량분석 결과, 높은 희망-높은 공감 집단이 또래관계의 질과 심리적 안녕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낮은 희망-낮은 공감 집단은 또래관계의 질과 안녕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안녕감에 대해서는 높은 희망-낮은 공감 집단과 높은 희망-높은 공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낮은 희망-높은 공감 집단도 낮은 희망-낮은 공감 집단과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정서적 안녕감에 희망변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사후검증의 일환으로 실시한 중다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희망의 한 요인인 주도사고(agency thinking)가 정서적 안녕감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이며, 약 7%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희망과 공감이 청소년의 또래관계 및 심리적 안녕감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희망, 특히 주도사고 계발을 돕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희망, 공감, 심리적 안녕감, 또래관계

* 본 연구의 분석은 본 저자의 지도하에 2007년에 석사논문 쓴 이현진의 자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이 과정에서 자료사용과 관련, 이현진의 동의를 얻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현진의 석사논문과는 별개의 연구 설계 및 분석이 저자 단독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이희경,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 2동
E-mail : ahalee@catholic.ac.kr, Tel : 02-2164-4296

최근 긍정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연구자들은 개인의 긍정적인 특성(예, 희망, 공감, 낙관성, 영성 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Seligman, 2002; Snyder & Lopez, 2002, 2006). 기존의 심리학이 개인의 부정적인 문제(예, 질병, 약점, 손상)를 치료, 교정하는데 중점을 두던 반해, 긍정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성장 지향적이고, 고유성과 잠재력을 실현해 가는 존재로 바라보며, 개인의 행복은 부정적인 부분을 소거시키는 것 뿐 아니라 긍정적인 특성과 장점을 개발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런 맥락에서, Seligman(2002)은 개인의 강점을 증진, 개발하는 것이 심리적인 부적응 문제(예, 우울, 불안)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예방중심적’ 시각은 상담심리학의 주요 관심사이며(Gelso & Fretz, 2001), 특히, 발달적인 측면에서, 중학교 연령단계의 초기청소년들의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초기청소년들의 긍정적인 특성이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또래관계의 질, 정서 및 행동통제 안녕감)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상담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연구자들은 긍정심리학적 변인인 희망과 공감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 희망(hope)은 “인간이 바라는 목표로 향하는 통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이며, 이런 통로들을 활용하도록 동기화되는 것”(Snyder, Rand & Sigmon, 2002, p. 257)으로 정의되며, 희망은 인간의 긍정적인 정서 및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nyder 외, 2002). 구체적으로, 희망은 긍정적인 정서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Snyder 외, 1997),

희망수준이 낮은 대학생에 비해 희망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보다 활력과 자신감이 넘치고(Snyder 외, 1991), 높은 희망 수준은 높은 자기 가치감, 원만한 인간관계, 그리고 낮은 수준의 우울과 관련되었다(Snyder 외, 1997). 또한 높은 수준의 희망은 다음의 변인들과 관련됨이 보고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Snyder 외, 1997), 낮은 수준의 외로움(Sympson, 1999), 높은 학업적 성취(Curry, Snyder, Cook, Ruby, & Rehm, 1997; Snyder, Wicklund, & Cheavens, 1999), 운동선수들의 높은 수행능력(Curry & Snyder, 2000), 긍정적인 심리상태(Snyder, Feldman, Taylor, Schroeder, & Adams, 2000), 양호한 스트레스 관리(Snyder & Pulvers, 2001), 그리고 건강을 위한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Snyder 외, 1991).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일관적으로, 긍정심리학 변인인 희망이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적응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심리적응 분야를 다루는 상담자들의 관심을 요한다. 하지만 주로 Snyder와 그 동료들에 의해 보고된 이 연구 결과들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에서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예, 김남희, 2006; 김정민, 2007)는 한국인들의 긍정적인 특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남희(2006)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희망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희망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삶에서의 사적 경험에 대해 수용을 잘 하고, 보다 많은 사회적 지지 지각을 하며, 회피적 대처방식보다는 접근적 대처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영(2005)의 연구결과는 초·중·고 교사들의 높은 희망수준은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높은 정적인 상관관을 보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정민(2007)의 연구에서는 희망의 하위차원인 주도사고와 경로사고가 대학생들의 유머 사용(예, 관계동맹유머, 자기고양유머)과 정적인 상관관을 보였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긍정심리학적 변인인 희망이 한국인의 긍정적인 심리적응과 관련됨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을 한국의 초기청소년, 즉 중학생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일반화의 문제가 있다.

둘째, 또 다른 긍정심리학적 변인인 공감 역시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적응과 관련성의 측면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공감(empathy)은 타인의 감정과 심리상태, 혹은 경험을 마치 나의 것처럼 느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내적 경험을 매순간 함께 느끼고 인지하는 능력에 기초를 두는 정신 내적 현상으로,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는 능력은 원만한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고(Greenson, 1960; Kohut, 1959) 대인관계 상의 갈등이 생겼을 때 완충기 역할을 하며,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Gordon, 1970). 공감은 다양한 친사회적인 행동, 특히 이타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Batson, Ahmad, Lishner, & Tsang, 2002), 반대로 공격적인 행동과는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Feshbach, 1978; Miller & Eisenberg, 1988). Krebs(1975)의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자신과 유사하다고 지각되는 상대에 대해 더 많이 도와주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타인의 입장에 얼마나 유사하게 공감하는가의 정도에 따라 그 상대방을 돕는 정도가 결정됨을 보여준 것이다.

공감변인이 청소년들의 집단 따돌림 현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 본 연구결과, 공감수준이 낮은 중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의견에 쉽게 동조하여 집단따돌림의 가해자 쪽을 지지하는 데 반해, 공감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따돌림의 피해자를 지지하고(이희경, 2000), 따돌림 피해자들에게 더 호의적이며 더 많은 도움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희경, 2001). 더욱이, 이희경(2003)은 중학생의 공감과 집단주의 성향은 따돌림 피해자의 도움행동에 응하는 것과 정적인 상관관을 보인 데 비해, 개인주의 성향은 도움행동과 부적인 상관관이 있음을 보임으로써, 집단따돌림을 이해할 때 공감수준과 아울러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같은 문화적인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중학생의 또래관계의 문제(예, 집단 따돌림)를 이해하고 예방하는데 긍정심리학 변인인 공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과 또래관계에서 학생들 간에 서로의 입장, 기분, 의도 등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들의 안녕감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희망 및 공감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안녕감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들을 제공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희망에 관한 연구들(Snyder와 동료들의 연구; 김남희, 2006; 김준영, 2005; 김정민, 2007)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서 제약이 있다. 또한 공감에 관한 연구들(예,

Batson 등, 2002; 이희경, 2003)은 비록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감수준이 집단따돌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실제로 중학생들이 희망 및 공감수준 상에서 보일 수 있는 다양한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즉, 기존의 연구들 중 어떤 연구도 ‘과연 중학생 집단이 희망 및 공감수준에서 동질적인가’라는 연구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성격특성을 보이며 동기수준 및 학습에서도 개인차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Pintrich, Roeser, & de Groot, 1994 참조), 중학생들의 특성(예, 희망과 공감수준)에 따라 다양한 하위집단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희망과 공감이 중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이들이 동일하다고 취급하는 것은 획일성의 신화(Kiesler, 1966)라는 우를 범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실제로 한국 중학생들이 희망과 공감 수준에 따라 어떠한 자연발생적인 하위집단을 구성하는지를 살펴보고, 이 하위집단들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또래관계의 질 및 정서·행동 상의 안녕감)의 측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경험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상담자 및 교육자들이 각 중학생 하위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입을 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대상의 개인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각 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상담심리학의 철학과 맥을 같이할 뿐 아니라, 상담연구의 중요한 질문 중의 하나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공감과 희망 수준에 따라 몇 개의 자연발생적인 하위집단이 구성되는지, 그리고 이들 하위집단들이 또래관계의 질 및 심리적 안녕감 하위척도의 평균점수 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집분석을 통하여 탐색적으로 조사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4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 600명(남 286, 여 301)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 대상자 600명 중 답변의 타당도가 의심되거나 응답자체가 누락된 13명을 제외하고 총 587명(남 286, 여 301)의 자료에 대해 분석이 실시되었다.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희망수준, 공감수준, 또래관계의 질, 그리고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 등 4개의 변인을 측정하였다. 각 변수를 측정하는 도구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희망 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희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강이영(2002)이 Snyder와 Harris 등(1991)이 개발한 특성 희망척도와 Snyder와 Sympson 등(1996)이 개발한 상태 희망척도를 종합하여 번안하고, 김택호(2004)가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18문항으로 구성된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에 평정하는 방식으로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희망수준을 의미한다. 경로사고(pathway thinking)와 주도사고(agency thinking)라는 두개

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경로사고'는 한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고, '주도사고'는 희망의 동기적 요소와 관련되며, 주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관련된 내적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 Snyder와 그 동료들(1991, 1996)이 보고한 특성희망 척도의 내적합치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범위는 .74~.84, 상태희망의 경우는 .79~.95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전체 척도($r=.88$), 경로사고 (.83), 주도사고 (.82).

공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0)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국내에서 김성은(1997)이 청소년에 맞게 번안, 수정, 요인 분석한 것을 사용하였다. 김성에에 의하면, 이 공감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 즉 관점 취하기(perspective-taking),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 상상하기(fantasy)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청소년의 공감능력을 측정하는데 좀 더 관련이 있는 두 개의 하위요인인 관점취하기(인지적 공감, 7문항)와 공감적 관심(정서적 공감, 7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Likert형의 선택지(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Davis(1994)가 보고한 IRI 도구의 Cronbach's α 범위는 .70~.7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도구 전체 $r=.81$, 관점 취하기 .67, 그리고 공감적 관심 .73.

또래관계 척도

본 연구에서는 문은식(2001)이 Murray와 Greenberg(2000)의 애착관계 도구, 그리고 Nolten(1994)의 사회적 지지 도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중·고등학생의 상황에 맞도록 번안, 수정한 것 중, 또래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31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크게 세 가지 요인, 즉 또래 우호관계, 또래 만족관계(원래 불만관계로 명명되었으나 역채점 문항으로 되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만족관계로 명명함), 그리고 또래 사회적지지로 구성되어 있다. 문은식(2001)에 의하면, 이 요인들은 청소년의 인간관계의 질을 알아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우호적이고 만족스러우며 지지적임을 의미한다. Murray와 Greenberg(2000)가 보고한 애착관계 도구의 Cronbach's α 는 부모애착 요인의 경우 .88, 또래 애착은 .90 이었으며, 본 연구에 사용한 또래 관계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도구 전체 $r=.92$, 우호관계(.82), 만족관계(.73), 그리고 사회적 지지(.89).

심리적 안녕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문은식(2001)이 Kaplan과 Machr(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중학생의 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인 정서적 안녕감과 행동 통제에 관련된 안녕감을 측정하는 두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가 안정되고 충동적인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Kaplan과 Machr

(1999)가 보고한 안녕감 척도의 Cronbach's α 는 .82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도구 전체, $r=.79$, 정서적 안녕감 요인(.77), 그리고 행동통제 관련 안녕감 요인(.68).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해 각 군집분석과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청소년의 공감과 희망 수준에 따라 몇 개의 자연발생적인 하위집단이 존재하는가?’에 답하기 위해서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 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대상(응답자, 상품 혹은 다른 단위들)을 미리 정해진 기준에 의거, 한 군집 내에 유사한 대상들이 속하도록 분류” 하는 것이다(Hair & Black, 2000, p. 147). 2단계 군집분석 방법은 위계적 군집분석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을 조합하는 것이다. 먼저 1단계에서는 대표적인 위계적 군집 방법인 Wards 방법을 이용하여 군집의 수 및 각 군집의 초기 중심점을 결정한다. 그 다음 2단계에서는 각 군집의 중심점을 비위계적 군집방법인 k-means 방법의 초기 시작점으로 투입하여, 각 사례를 그 중심점을 향해 흠뻑리는 방식으로 각 군집별 사례를 결정한다. 이 방법은 위계적 군집방법을 많은 수의 사례에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단점, 즉, 사례 중 다른 대부분의 사례로부터 이탈되는 정도가 큰 사례가 군집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이점이 있다.

다변량분석

‘공감과 희망 수준에 따라 구성된 하위집단

들이 또래관계의 질 및 심리적 안녕감 하위 척도의 평균점수 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라는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은 각 군집이고 종속변인은 또래관계의 세 가지 하위척도(우호관계, 만족관계,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의 두 가지 하위척도(정서적 안녕감과 행동통제 안녕감)로 이루어졌다.

결 과

청소년의 공감과 희망 수준에 따라 몇 개의 자연발생적인 하위집단이 존재하는가?

청소년의 희망과 공감수준의 하위척도들을 군집변인(clustering variables)으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Wards 방법을 사용한 위계적 군집분석) agglomeration schedule 계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 3, 4 군집이 제안되었다. Agglomeration 계수의 변화 %는 2, 3, 4개의 군집으로 나눌 때 각각 36%, 23%, 12%였고, 그 이후에는 변화폭이 현저하게 둔화되었다. 2-4 개의 군집형성안(案) 중에서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할 때가 각 군집의 차별적 특성이 가장 두드러졌고 개념적으로도 잘 설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을 희망과 공감수준에 따라 분류해 볼 때, 4개의 집단으로 구성됨이 시사되었다. 이어서, 각 군집에 해당하는 군집변인들의 평균 점수를 초기 중심점(seed points)으로 삼아 2 단계에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각 참여자를 해당 군집에 최종 분류하였다. 그 결과 군집 1은 125명(전체의 21.3%, 남학생 63명, 여학생

62명), 군집 2는 158명(26.9%, 남 78, 여 80), 군집 3은 155명(26.4%, 남 67, 여 88), 그리고 군집 4는 149명(25.4%, 남 78, 여 71)으로 나타났다. 각 군집 내의 분포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hi^2(3, N=587) = 2.83, p > .05$).

각 군집의 이름을 정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군집별 군집변인들의 점수를 표준점수(Z)로 변환하고 이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점수들이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평균은 0, 표준편차는 1로 설정되었다. 그림 1을 보면, 군집 1은 희망의 두 하위척도(경로사고, 주도 사고)에서는 평균이하의 점수를 보인데 반해, 공감의 두 하위척도(관점취하기, 공감적 관심)에서는 평균이상의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집 1은 “낮은 희망-높은 공감 집단”으로 명명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

로, 군집 2는 “높은 희망-높은 공감 집단,” 군집 3은 “낮은 희망-낮은 공감 집단,” 그리고 군집 4는 “높은 희망-낮은 공감 집단”으로 각각 명명되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이 희망과 공감수준으로 볼 때 크게 4개의 하위유형 혹은 군집으로 나누어짐을 시사한다. 각 군집별 군집변인들의 점수들은 군집 분석의 정의상 이미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Hair & Black, 2000), 따로 군집 간 점수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공감과 희망 수준에 따라 구성된 하위집단들이 또래관계의 질 및 심리적 안녕감 하위 척도의 평균점수 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이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네 개의 군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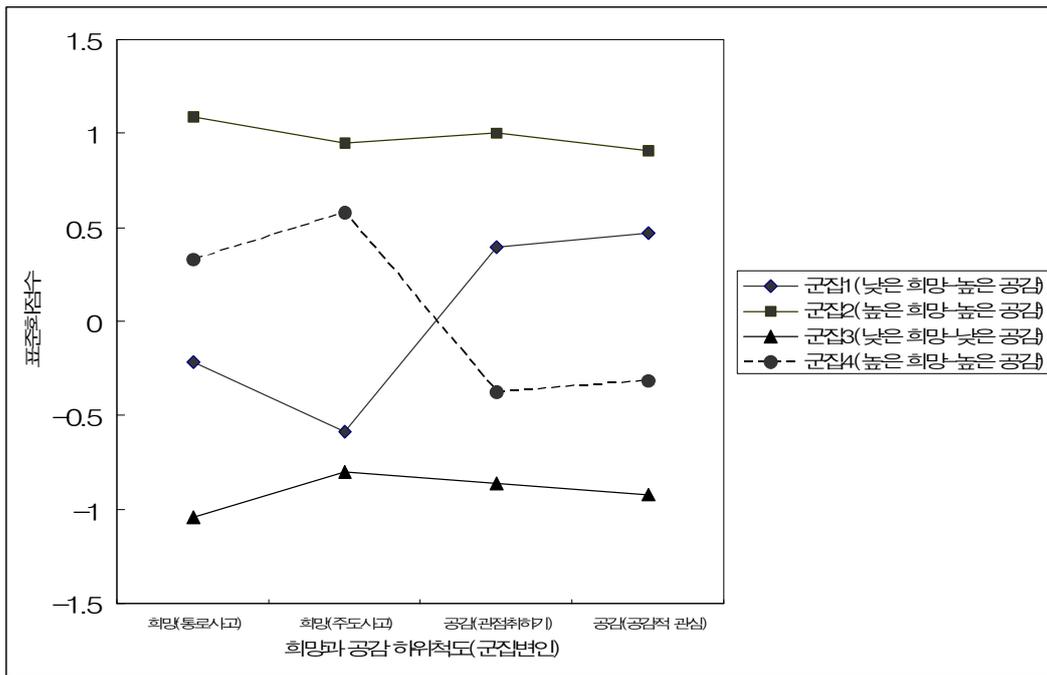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의 희망 및 공감수준에 따른 군집

을 독립변수의 네 수준으로, 또래관계의 질(우호관계, 만족관계, 사회적지지 하위척도)과 심리적 안녕감(정서적 안녕감, 행동통제 안녕감 하위척도)을 종속변수로 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Box의 검정결과[$F(45, 790102.7) = 1.04, p > .05$]는 종속변수의 관측 공분산행렬(covariance matrices)이 동일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가 정상성, 집단별 분산의 동질성과 같은 기본 가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시사한다(Mertler & Vannatta, 2005). 다변량분석의 전체 분석모형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도 수준 .01에서 의미가 있었다[Wilks' Lamda(Λ)=.71, $F(15, 1598.77) = 14.05, p < .001$], 부분에타자승, 즉 효과크기(η^2)=.11. 이 결과는 군집들이 또래관계의 질과 심리적 안녕감의 전반적인 수준에서 유의한 집단차이를 보임을 시사하며,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고, 종속변수 각각에 대한 변량분석(ANOVA)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나타낸다.

ANOVA 결과에 따르면, 독립변수(군집)는 다섯 개의 종속변수 모두에서 유의도 수준 .01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또래 우호관계[$F(3, 583) = 47.59, \eta^2 = .20$], 또래 만족관계[$F(3, 583) = 21.05, \eta^2 = .10$], 또래 사회적 지지[$F(3, 583) = 45.16, \eta^2 = .19$], 정서적 안녕감[$F(3, 583) = 12.01, \eta^2 = .06$], 그리고 행동통제 안녕감[$F(3, 583) = 16.90, \eta^2 = .08$]. 각 군집의 종속변수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주목할 것은, 준거로 삼은 유의도 수준으로 $p < .05$ 대신 $p < .01$ 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다섯 개의 종속변수 각각에 대한 개별 ANOVA를 적용하는데서 생길 수 있는 일종 오류(영가설이 사실인데 잘못 기각할 오류)의 증가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본페로니 방식의 교정(a Bonferroni-type adjustment; $.05/5 = .01$; Mertler & Vannatta, 2005)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표 1. 각 군집별 또래관계의 질과 심리적 안녕감 하위척도의 평균 점수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3, 583)
	M	SD	M	SD	M	SD	M	SD	
우호관계	26.54 _{2,3,4}	3.68	23.78 _{1,4}	3.40	23.95 _{1,4}	3.91	21.25 _{1,2,3}	3.65	47.59*
만족관계	27.15 _{2,3,4}	3.52	25.77 _{1,4}	3.61	25.53 _{1,4}	3.73	23.69 _{1,2,3}	3.70	21.05*
사회적지지	47.99 _{2,3,4}	6.87	43.13 _{1,4}	6.33	42.59 _{1,4}	7.21	38.38 _{1,2,3}	6.86	45.16*
정서적안녕	22.87 _{3,4}	4.88	21.54 _{3,4}	4.21	20.18 _{1,2}	4.45	19.95 _{1,2}	4.78	12.01*
행동통제	17.89 _{2,3,4}	3.51	16.19 _{1,4}	2.79	16.34 _{1,4}	3.50	15.09 _{1,2,3}	3.19	16.90*

* $p < .01$.

주. 각 첨자는 해당 군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이 다른 군집번호를 의미함.

예) 우호관계에 대해 군집 1은 군집 2, 3, 4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그 다음, 독립변수(군집)가 두 개 이상의 수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군집의 평균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Tukey pair-wis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첨자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각 첨자는 해당 군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이 다른 군집번호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호관계($M=26.54_{234}$)의 의미는, 군집 1이 군집 2, 3, 4와 또래 우호관계의 평균 점수에 있어서 유의도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1에 의하면, 군집 1(높은 희망-높은 공감 집단)은 다른 모든 군집보다 유의미하게 좋은 또래관계의 질(또래 우호관계, 만족관계, 사회적지지)과 높은 행동통제 안녕감을 보였으며, 반대로 군집 4(낮은 희망-낮은 공감 집단)는 다른 모든 군집보다 좋지 않은 또래관계의 질과 낮은 행동통제 안녕감을 보였다. 정서적 안녕감 변

인에 대해서는, 군집 1(높은 희망-높은 공감 집단)과 군집 2(높은 희망-낮은 공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군집3(낮은 희망-높은 공감 집단)도 군집4(낮은 희망-낮은 공감 집단)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각 군집별 종속변수 점수 차이를 쉽게 나타내기 위해, 종속변수를 표준화 점수로 바꾼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과 그림 2의 결과, 특히 정서적 안녕감에 대해 군집 1(높은 희망-높은 공감 집단)과 군집2(높은 희망-낮은 공감 집단) 사이, 그리고 군집 3(낮은 희망-높은 공감 집단)과 군집 4(낮은 희망-낮은 공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희망이라는 변인은 정서적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반하여 공감이라는 변인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희망의 하위척도와 공감의 하위척도 중 어떤 것이 정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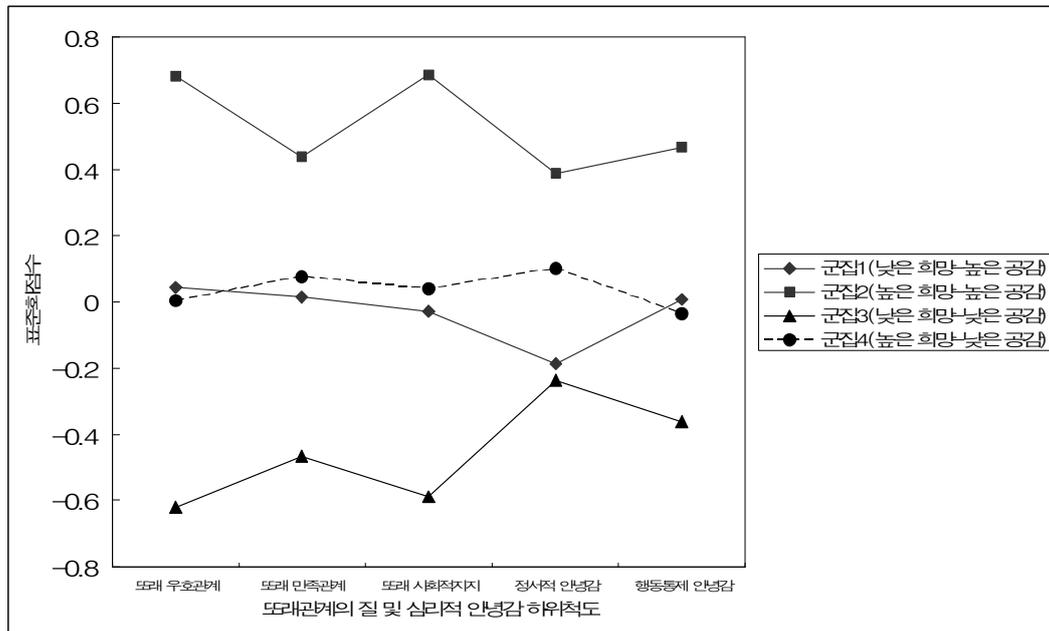


그림 2. 각 군집별 또래관계의 질 및 심리적 안녕감 수준

안녕감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예언요인인지 를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미리 설정한 연구문제는 아니었지만 다음과 같은 ‘사후’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희망의 하위척도(경로사고, 주도사고) 및 공감의 하위척도(관점취하기, 공감적 관심)가 정서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예언하는가, 그리고 각각 어느 정도의 설명 변량을 지니는가?

이 추가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희망과 공감의 하위척도들을 예언변인으로, 정서적 안녕감을 준거변인(혹은 종속변인)으로 하여, 동시 중다회귀분석(simultaneous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석의 대상이 된 회귀식(희망과 공감 하위수준 전체를 포함)은 유의 미했으며 [$F(4, 582) = 17.06, p < .001$], 정서적 안녕감 변수의 변량 중 약 10%를 설명하였다 (조정된 $R^2 = .099$). 희망과 공감의 각 하위척도가 각각 정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희망과 공감의 하위척도 중 정서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예언하는 것은 희망의 한 요인인 주도 사고 뿐이었다, $\beta = .33, t = 6.89, p < .01$. 이 결과는 주도사고의 매 1단위 변화에 대해 정서적

안녕감이 .33단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도 사고 변수에 대해 이 변수의 고유한 설명변량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분상관계수 상승 (semi-partial r^2 , Tabachnick & Fidell, 2001)을 계산하면 .073 ($= .27 \times .27$)이 되고, 따라서 정서적 안녕감의 약 7% 정도의 변량이 희망의 한 요인인 주도사고에 의해 설명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도사고가 희망과 공감의 하위척도 전체에서 유의하게 정서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 결과의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서 국내 중학생이 희망과 공감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심리학자, 교육자,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청소년들 중에 희망과 공감수준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나 높은 긍정적인 집단이 존재하는 한편, 평균보다 1 표준편차나 낮은 비(非)긍정적인 집단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특히, 긍정적인 특성을 지닌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훨씬 건강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며 정

표 2. 희망 및 공감 하위척도로 정서적 안녕감을 예언하는 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수	B	Standard Error	β	t	Semi-partial r	
상수(constant)	14.62	1.30		11.24**		
희망	경로사고	-.03	.05	-.03	-.55	-.02
	주도사고	.30	.04	.33	6.89**	.27
공감	관점취하기	.07	.05	.06	1.36	.05
	공감적 관심	-.03	.05	-.03	-.61	-.02

주. 종속변수: 정서적 안녕감, β = 표준화 회귀계수.

서적, 행동적으로도 안정되어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 중학생들이 희망과 공감수준에서 다양한 개인차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네 개의 집단 중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연구 참여자의 26.4%(155명)을 구성하고 있는 군집 3(낮은 희망-낮은 공감 집단)에 속한 중학생들이다. 이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의 경우 또래관계에서 우호성, 만족성, 사회적 지지를 받는 정도가 낮고 정서 및 행동문제 안녕감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건강 및 사회관계의 측면에서 고위험군(at-risk)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집단따돌림과 같은 또래관계 상의 대표적인 문제의 측면에서도 이 집단은 교육 및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특별한 관심이 요망된다. 물론 이 집단에 속한 중학생들이 집단따돌림을 많이 경험하는가의 문제는 후속연구에서 경험적으로 조사해야 하겠지만, 고위험군에 속한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며 50문항 이하의 희망과 공감척도를 실시해서 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비용절감의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긍정심리학 변인들인 희망과 공감이 청소년의 또래관계 및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왜냐하면, 희망과 공감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들에 비해 건강한 또래관계와 높은 심리적 안정성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희망이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는 김남희(2006)의 연구와 높은 수준의 희망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와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Snyder, Hoza 외(1997)의 연구와 일관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결과는 높은 공감수준을 보인 학생들이 집단따돌림의 피해자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경향과 도움행동에 더 많이 응한다고 보고한 이희경(2000, 2001)의 연구결과 및 공감이 친사회적인 행동과 관련된다는 Batson 외(2002)의 결과와도 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결과의 중요한 의의는, 청소년의 정서적 안녕감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희망의 중요성, 특히 주도사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데 있다. 공감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희망 수준은 높았던 두 집단, 군집 4(희망 수준이 높지만 공감수준은 평균 이하인 집단)와 군집 2(희망과 공감수준 모두 높은 집단)의 정서적 안녕감 수준은 차이가 없었고, 희망 수준은 동일하게 낮았으나 공감수준이 더 높았던 군집 1(공감수준은 높지만 희망수준은 평균이하인 집단)은 군집 3(희망과 공감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에 비해 정서적 안녕감 수준에서 더 나은 것이 없었다는 결과를 볼 때, 청소년의 정서적인 안녕감의 측면에서는 희망이 공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시사된다. 추가적인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보이듯이 희망, 특히 주도사고 요인이 정서적 안녕감을 예언하는 유력한 변인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주도사고는 희망 중에서도 동기적인 측면을 나타내며(Snyder, 1994) 개인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도 관련이 된다. Snyder(1994)에 의하면, 이러한 긍정적인 내적언어를 지닌 사람은 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 가지 대안적인 문제해결 경로 중에서 최선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동기화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개인이 정서적인 안녕감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희망이 긍정적인 정서와 정적인 상관이 있

다는 연구 결과(Curry 외, 1997)와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희망수준, 특히 주도사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행복추구라는 목표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대처를 한다는 연구 결과(Snyder, 1994; Snyder 외, 1991)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들의 희망수준, 특히 주도사고 수준을 높이는 개입이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안녕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상담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강점중심 상담모형(the strength-based counseling model, Smith, 2006)이 희망 고취시키기(instilling hope)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셋째, 희망, 특히 주도사고가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예언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본 연구 결과는 학교장면에서 청소년들의 희망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도사고는 목표지향적인 사고를 증진시키고 자존감을 포함한 긍정적인 성과와 관련되며(Curry 외, 1997; Snyder, Cheavens, & Michael, 1999), 문제 해결의 대안행동 창출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하다(Snyder 외, 1991).

본 연구가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몇 가지 제한점들 역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째, 자기보고식 자료에 바탕을 둔 연구들이 그렇듯이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개념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실제 희망, 공감 수준을 측정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각(perception)을 측정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둘째, 비록 정밀한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했지만, 군집분석이 표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비슷한 표본에 대해 본 연구에서 발견된 네 개의 군집이 다시 타당화 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네 개의 군집형성이 희망의 고저 × 공감의 고저에 따른 네 개의 집단(High-High, Low-Low, High-Low, Low-High)과 서로 다르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인위적인 네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군집분석을 통해 자연발생적인 집단분류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에 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의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의 중학생에도 이 결과들이 타당한지 그 일반화 가능성에 제약이 있다. 아울러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이 본 연구 참여자들의 희망 및 공감수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또 중학생이라는 발달 연령적인 측면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사후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주도사고 요인 정서적 안녕감의 중요한 예언변인)은 미리 연구시작 전에 설정된 것이 아니고 연구과정에서 필요성에 의해 설정된 것이므로 후속 연구에서 가설-검증 방식으로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긍정심리학 변인인 희망과 공감이 중학생의 또래관계와 안녕감에 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희망과 공감수준에 따라 실제로 다양한 중학생 집단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밝혔다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더욱이 희망의 주도사고 요인이 중학생의 정서적 안녕감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서 시사되었고 이를 통해 학교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긍정심리학적 접근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이영 (2002). 상담과정 희망척도의 개발과 적용.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남희 (2006). 희망과 사회적 지지, 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은 (1997). 학생의 감정공명과 학업성적, 학습 내 사회성, 학교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민 (2007). 유머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반추와 희망변인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준영 (2005). 교사의 희망과 공감이 자아존중감, 직무만족도 및 훈육유형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택호 (2004). 희망과 삶의 의미가 청소년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은식 (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된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현진 (2007). 희망과 공감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희경 (2000). 집단따돌림 현상에서 공감수준이 동조와 귀인에 미치는 영향. 교육논총, 16, 43-56.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 이희경 (2001). 공감수준과 친소관계가 따돌림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15(3), 281-297.
- 이희경 (2003). 문화성향·공감과 동조가 집단 따돌림현상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7(4), 147-166.
- 최승은 (2005). 친구관계 유형에 따른 갈등해결 전략 및 친구관계 만족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ston, C. D., Ahmad, N., Lishner, D. A., & Tsang, J. (2002). Empathy and altruism.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485-49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urry, L. A., & Snyder, C. R. (2000). Hope takes the field: Mind matters in athletic performances. In C. R. Snyder (Ed.), *Handbook of hope: Theory, measures, and applications* (pp. 243-260).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Curry, L. A., Snyder, C. R., Cook, D. L., Ruby, B. C., & Rehm, M. (1997). Role of hope in academic and sport achie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6), 1257-1267.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p. 85.
- Davis, M. H. (1994).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Wisconsin: Brown & Benchmark.
- Feshbach, N. D. (1978). Studies of empathic behaviors in children. In B. A. Maher (Ed.),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Vol. 8). New York: Academic Press.
- Gordon, T. (1970). *Parent Effective Training: The No-Lose Program for Raising Children*. New York: Wyden Books.
- Greenon, R. R. (1960). Empathy and its

- vicissitud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1, 418-424.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aplan, A., & Maehr, M. L. (1999). Achievement goals and student well-being.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4, 330-358.
- Kiesler, D. (1966). Some myths of psychotherapy research and the search for a paradigm. *Psychological Record*, 65, 110 - 136.
- Kohut, H. (1959). Introspection, empathy, and psychologist.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logists Association*, 7, 459-483.
- Krebs, D. L. (1975). Empathy and altru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1134-1146.
- Mertler, C. A., & Vannatta, R. A. (2005). *Advanced and multivariate statistical methods: Practical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3rded.). Glendale, CA: Pyrczak Publishing.
- Miller, P. A., & Eisenberg, N. (1983). The relation of empathy to aggressive and externalizing/anti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03, 324-344.
- Murray, C., & Greenberg, M. T. (2000). Children's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bonds with school: an investigation of patterns and correlate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8, 423 - 445.
- Nolten, P. W. (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Pintrich, P. R., Roeser, R. W., & de Groot, E. A. M. (1994). Classroom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early adolescents' motiv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2), 139-161.
- Seligman, M. E. P. (2002).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3-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mith, E. J. (2006). The strength-based counseling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4, 13-79.
- Snyder, C. R. (1994).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get there from here*. New York: Free Press.
- Snyder, C. R., Cheavens, J., & Mechael, S. T. (1999). Hoping. In C. R. Snyder (Ed.), *Coping: The Psychology of what work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nyder, C. R., Feldman, D. B., Shorey, H. S., & Rand, K. L. (2002). Hopeful choice: A school counselor's guide to hope therapy.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5, 298-307.
-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ng, L. M., Sigmon, S. T., Yoshinobu, L., Gibb, J., Langelle, C., & Harney, P.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70-585.
- Snyder, C. R., Hoza, B., Pelham, W. E., Rapoff,

- M., Ware, L., Danovsky, M., Highberger, L., Rubinstein, H., & Stahl, K. J. (1997).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hildren's Hope Scale.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2*, 399-421.
- Snyder, C. R., & Lopez, S. J. (2002).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nyder, C. R., & Lopez, S. J. (2006). *Positive psychology: The scientific and practical explorations of human strength*. Thousand Oaks, CA: Sage.
- Snyder, C. R., & Pulvers, K. (2001). Dr. Seuss, the coping machine, and "Oh, the places you will go." In C. R. Snyder (Ed.), *Coping with stress: Effective people and process* (pp. 3-1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nyder, C. R., Rand, K. L., & Sigmon, D. R. (2002). Hope theory: A member of the positive psychology family.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257-27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nyder, C. R., Sympson, S. C., Yabasco, F. C., Borders, T. F., Babyak, M. A., & Higgins, R. L. (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tate Hop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21-355.
- Snyder, C. R., Wicklund, C., & Cheavens, J. (1999, Boston). *Hope and success in college*. Paper presented at an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ympson, S. (1999). *Validation of the Domain Specific Hope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Lawrence.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1).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4th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원 고 집 수 일 : 2007. 4. 27

수정원고집수일 : 2007. 7. 5

게 재 결 정 일 : 2007. 8. 2

Differences in Middle School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by Subgroups of Hope and Empathy

Hee-Kyung Le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natural groupings of 587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in terms of their levels of hope and empathy an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uster on the basis of the students' scor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peer relationship quality, emotional and behavioral well being). A two-step cluster analysis following the recommendations from Hair and Black (2000) revealed the presence of four clusters: Low Hope - High Empathy Group (EMPATHY), High Hope - High Empathy Group (HIGH), Low Hope - Low Empathy Group (LOW), and High Hope - Low Empathy Group (HOPE) with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within each cluster. Results from a MANOVA analysis revealed that HIGH outperformed other clusters across all the dependent measures but Emotional Well-being whereas LOW showed lower scores than others clusters. As far as Emotional Well-being is concerned,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 between HOPE and HIGH, and (b) between EMPATHY and LOW, which may lend importance to hope in explaining adolescents' emotional well-being. A post-hoc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only Agency Thinking, one factor of hope significantly predicted Emotional Well-being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7% of its variance. In summary,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hope and empathy, positive psychology variables, are positively related to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may benefit from developing hope, particularly agency thinking to promote their emotional well-being.

Key words : hope, empathy, psychological well-being, peer relationships